

# 스포츠월 **SPORTS1**

**2022 03 | VOL.69**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MONTHLY MAGAZINE



# CONTENTS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종목

총 길이 **6,400m**

정재원 선수의 주 종목인 매스스타트의 총 길이는 6,400m. 첫 번째 바퀴에서는 서로를 탐색하다가, 총성이 울리는 두 번째 바퀴부터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친다. 체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전략. 6,400m를 달리는 동안 끝까지 두뇌싸움을 해야 하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SPORTS1**

2022 03 | VOL.69

발행인 이기흥 회장

편집인 조용만 사무총장

발행처 대한체육회 홍보실

발행일 2022년 03월 25일

주소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전화 02.2144.8114

팩스 02.420.4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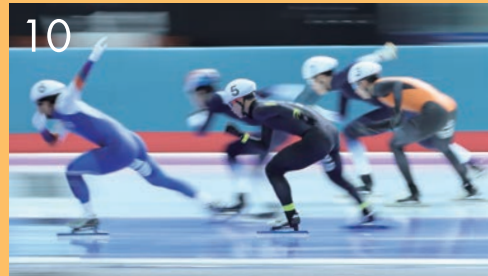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sports.or.kr](http://www.sports.or.kr)

등록번호 송파, 라 00052

기획·디자인 디자인메카 02.516.1910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http://www.sports.or.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



## KSOC & SPECIAL

### 04 포토에세이

### 06 THEME TOPIC

스포츠를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리드하다

### 10 THEME REPORT

국내 최대의 동계스포츠 축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펼쳐보다

### 18 THEME INTERVIEW

모든 것에 진심으로-대한민국 '빙속'의 미래 '정재원'



## KSOC & SPORTS

- 22 ZOOM I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체육공약 집중 분석
- 28 SPONOMICS**  
미래 먹거리, 스포츠에 길을 묻다
- 30 SPORTS 7330-배워봅시다**  
모두가 함께하는 농구동호회를 꿈꾸다-ABC 농구단
- 34 TECH INSIGHT**  
실력이 느는 만큼 장비도 진화한다  
양궁 선수들이 쓰는 활
- 38 GLOBAL SPORTS PRISM**  
환경을 품은 스포츠  
그리고 지속가능성
- 40 학교야 체육하자!**  
체육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다  
문산제일고등학교



## KSOC & TREND

- 44 NEW NORMAL & SPORTS**  
스포츠 중계, 우리는 OTT로 본다!
- 46 SNS 라이브**  
어서 와! '대한체육회TV'는 처음이지?
- 48 가볍게 스포츠**  
모두가 만든 승리의 전술, 팀플레이
- 50 찰떡궁합**  
마라톤, 감자로 감~ 잡았어!
- 52 KSOC 모의고사**  
도전! 나도 Sporter
- 54 KSOC NEWS**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코로나라는 긴 어둠을 벗어나는 듯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 등 감염병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스포츠가 가진 희망과 평화의 힘은 2022년을 따뜻한 봄볕에 드는 세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그리고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위기에 동요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우리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밝혔습니다.

그 불씨를 크게 키우는 건 모두의 몫입니다. 새봄, 스포츠와 함께 희망이 넘실대는 건강한 일상을 소망합니다.



# 스포츠를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리드하다

글. 임상아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기획실장

지난해 12월 2일 유엔 총회에서는 193개 회원국의 합의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1월 28일~3월 20일) 50여 일을 휴전 기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유엔은 스포츠를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한다는 이상 구현의 취지로 1993년부터 2년마다 하계 및 동계올림픽에 앞서 휴전결의안을 채택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연대의 의미와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세계의 약속을 위반한 러시아에 대해 지구촌 스포츠계가 고개를 돌리고 있다.





##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평화 원칙 준수 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스포츠계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의 올림픽 휴전 결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IOC는 우크라이나 체육 단체 등에 대한 안전을 크게 우려하면서 우크라이나 올림픽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IOC 집행위원회는 각 국제경기연맹(IFs)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예정된 스포츠 이벤트 개최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러시아나 벨라루스의 국기가 게양되거나 국가가 연주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IOC는 러시아의 휴전 결의 위반과 과거 다른 올림픽 현장 위반 사례를 고려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수

여한 올림픽 훈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또한, IOC는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정책으로 연대기금을 편성하여 미화 2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기금 증액과 효율적 배분 등 세부 정책 조정은 우크라이나의 육상 영웅 세르게이 부부카 IOC 위원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 기금은 러시아 침공에 따른 군사 긴장으로 위험지역에서 탈출한 선수, 코치, 피란지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들, 국제대회에 출전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리듬체조 선수들과 육상 대표 선수들을 긴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크라이나올림픽위원회에 지원금 배정을 맡겼다. 이어, IOC는 올림픽난민재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에도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의 한목소리

IOC의 제재 방침 권고를 따라 국제스포츠기구 차원의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베이징동계패럴림픽에 러시아 및 벨라루스 선수단 참가를 불허했다. IPC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중립국 선수자격' 출전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영국, 독일 등 다수 국가의 거센 반발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들의 참가를 전격 금지했다. 반면 선수 20명, 가이드 9명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패럴림픽대회에 참가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및 임원의 대회 참가 등 활동을 2022년 말까지 금지했다. 이 결정으로 두 국가의 선수들은 2022년 6월로 연기된 2021 청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또 FISU는 2022년 러시아에서 예정된 두 번의 대학월드컵대회와 벨라루스 세계대학선수권대회를 취소했으며, 우크라이나 대학스포츠 공동체의 인도적 지원과 FISU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러시아 국가대표 및 클럽팀의 FIFA 산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유럽축구연맹(UEFA)도 FIFA의 결정에 동참하여 러시아 국가대항전 출전 금지 및 러시아 소속 클럽팀의 국제대회 출전을 모두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2022 카타르월드컵에 진출할 수 없게 되었고,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개최지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프랑스 생드니로 변경됐다.

러시아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국제유도연맹(IJF)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예회장 자격을 박탈하고, 오는 5월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2 카잔 그랜드슬램대회를 취소했다. 대신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이 중립국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허가했다. 세계레슬링연맹(UWW)은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의 레슬링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국제대회 개최 자격을 박탈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도 푸틴 대통령에 수여했던 명예 단장을 철회했다. 글로벌 모터스포츠대회 포뮬러원(F1)도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러시아 그랑프리대회를 취소하고 앞으로 러시아에서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제테니스연맹(ITF), 국제농구연맹(FIBA),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육상연맹(WA) 등 많은 단체가 두 국가를 잇달아 퇴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다. 영국 주재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스포츠 장관 회의에 참석해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26개 스포츠 장관들과 러시아의 국제스포츠대회 개최권 박탈,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경기 출전 금지, 러시아와 연계된 스포츠 관련 투자 조치(제한) 등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일 중국 장자커우에서 우크라이나 패럴림픽위원회와 세계평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우크라이나 선수단에 식품과 방역·보온 물품 등을 전달했다.



## 스포츠인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

혼란 속에 스포츠 스타들도 전쟁 반대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다. 유로파리그(UEL)에서 바르셀로나와 나폴리 선수들은 경기 전 ‘전쟁을 멈춰라’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했다. 맨체스터시티 주장 페르난지뉴는 주장 완장을 우크라이나 출신 선수에게 넘김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응원했다. 러시아 출신 스포츠 스타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에서 우크라이나 선수와 복식 우승을 합작한 러시아 선수 루블레프는 ‘평화를 빈다’라고 언급했으며, 이후 두바이오픈 단식 준결승에서 승리 후 “전쟁은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슈퍼스타 알렉스 오베츠킨도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 누구든지 전쟁은 안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른 국가이고, 우리는 평화 속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선수들도 전쟁에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침공을 피해 보트를 타고 탈출한 우크라이나 테니스 선수 다야나 야스트렘스카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에서 준우승하며 받은 상금 1만 4,545유로를 우크라이나 지원 재단에 기부할 뜻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고,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평화를 염원했던 우크라이

나 스켈레톤 선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항전했다. 조국의 평화를 위한 선수들의 자발적 항전에 따른 사망 소식도 들려왔다. 우크라이나 바이애슬론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와 축구선수 2명이 러시아와 맞서 싸우다 전사해 전 세계인들의 안타까움과 우려가 깊어졌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 등 메달 29개를 따내며 조국에 희망을 안겼다. 메달을 딴 선수들은 ‘평화’를 외치고, “조국에 바치는 메달”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패럴림픽이라는 그들만의 전쟁터에서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전한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대회가 끝나면서 또 다른 잔인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선수들은 패럴림픽이 끝나고 쉽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는 전쟁과 증오가 아닌 대화와 외교의 시대이다. 스포츠는 가장 효과적인 평화의 도구로써 화합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부터 국가까지 삶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염원과 호소가 이루어져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기원한다. **SPORTS1**



NATIONAL WINTERS SPORTS FESTIVAL





## 국내 최대의 동계스포츠 축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펼쳐보다



글. 편집실

국내 최대의 동계스포츠대회인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지난 2월 25일(토)부터 28일(월)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에서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4일간의 기록을 살펴봤다.



## 2년 만이라 더 반가운 동계스포츠 축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8개 동계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동계체육대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최하지 못했다.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2년 만에 개최된 올해 대회에는 17개 시·도에서 출전한 8종목(정식 5, 시범 3) 4,056명의 선수단(선수 2,591명, 임원 1,465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치며 2년 만에 열린 대회를 즐겼다. 시도별 종합순위로는 경기도가 메달 합계 268개, 총 1,184점을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무려 19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그 뒤를 이어 서울이 871.5점으로 종합 2위, 강원이 791.5점으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많은 선수가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지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정재원(21·의정부시청) 선수가 선정됐다. 한국체육기자연맹 기자단 투표에 의해 MVP로 선정된 정재원 선수는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5,000m, 10,000m, 팀추월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4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정재원 선수는 MVP 선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베이징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국내 가장 큰 대회인 동계체전에서 MVP에 선정되어서 기쁘다. 이 기세를 타고 ‘동계스포츠’하면 ‘정재원’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동계올림픽에 이어 동계체육대회로

이번 대회에서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저력도 돋보였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빙속 1,500m 올림픽 2연속 동메달을 획득한 김민석(23·성남시청)은 스피드스케이팅 1,000m, 팀추월,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특히 1,000m와 1,500m에서는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어려움을 딛고 올림픽 매스스타트에 출전해 5위에 올랐던 김보름(29·강원도청)은 스피드스케이팅 3,000m, 팀추월,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1,500m에서는 대회 신기록을 달성하며 올림픽언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에서 한국 타이기록을 세운 정동현(34·하이원) 선수는 슈퍼대회전, 대회전, 복합, 회전에서 우승하며 대회 4관왕을 차지했다. 정동현은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도 2017년 자그레브 대회 14위로 한국 선수 역대 최고 순위





기록을 보유한 선수이기도 하다. 극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했던 김소희(26·하이원) 선수는 대회전, 회전, 복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크로스컨트리 종목은 다수의 대회 5관왕을 배출했다. 김가온(16·진부중) 선수, 채가은(19·권선고) 선수, 이의진(21·경기도청) 선수 등은 클래식, 복합, 프리, 계주, 스프린트의 세부종목에서 우승하며 5개의 금메달을 가져갔다. 또한 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채원은 이번 대회 여자 1.2km 스프린트와 5km 클래식, 10km 프리, 15km 계주, 복합 등 5개 종목에 출전했다. 1996년부터 동계체전에 출전한 이채원은 그동안 동계체전에서 금메달만 78개를 따냈다. 이채원은 2019년 대회에서 4관왕, 2020년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6위를 기록한 유영(수리고)이 고등부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유영은 27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피겨스케이팅 여고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3.69점, 예술점수(PCS) 67.54점, 총점 141.23점을 받았다. 전날 기록한 쇼트프로그램 점수 75.15점을 합해 최종 총점 216.48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대학부에 출전한 올림픽 9위 김예림(단국대)은 TES 75.35점, PCS 66.54점으로 총점 141.89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 점수를 합한 최종 총점 214.66점으로 우승했다. 이 점수는 김예림의 비공인 최고점이기도 한다. 남자 대학부에선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했던 이시형(고려대)이 최종 총점 247.31점으로 우승했다.

## 동계스포츠의 미래, 꿈나무도 있어요

아울러, 향후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 갈 꿈나무 선수들을 만날 수 있었다. 크로스컨트리 조다은(13·화순초) 선수는 5관왕, 스피드스케이팅 박찬욱(13·양주덕현초) 선수, 알파인 스키 강다현(13·죽림초) 선수 등은 4관왕의 영예를 안았으며, 컬링의 김슬(9·의정부컬링스포츠클럽) 선수가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에 올라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미래를 밝게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4관왕 12명, 3관왕 17명 등이 배출되고 빙상 스피드 11개, 빙상 쇼트트랙 42개 등 총 53개의 대회 신기록이 작성되며, 전회 대비 다관왕 부문 57%, 신기록 부문 89% 이상 증가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전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TF를 구성해 대회 기간 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상황에 대비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더불어, 전 경기장에서 방역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본부 상황실에 신속항원검사소를 설치하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1일 1회 자가진단검사를 지원했다.

대회 기간 중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직접 태릉 국제스케이팅장을 방문해 감염 예방 활동 및 대응 체계 등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고 대회에 참가한 시·도선수단을 격려하기도 했다.

##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별도의 종합시상식 진행

한편,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공식행사인 개·폐회식을 개최하지 않았다. 종합시상식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3월 22일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종합시상, 최우수선수(MVP)상 그리고 특별시상으로 꿈나무상 등 3개 부문에 걸쳐 진행했다. 종합시상에서는 1위 경기도, 2위 서울특별시, 3위 강원도가, 최우수선수상은 스피드스케이팅의 정재원(21·의정부시청) 선수가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13세이하부 유망주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연소 메달리스트 및 최연소 최다관왕(5관왕) 선수에게는 특별상인 '꿈나무상'을 신설해 시상했다. 꿈나무상은 컬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슬(9·의정부컬링스포츠클럽) 선수와 크로스컨트리 클래식 3km, 프리 4km, 복합, 6km계주, 스프린트 0.7km에서 5관왕을 차지한 조다은(13·화순초) 선수가 수상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상을 신설해 수여할 계획이다. **SPORTS1**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순위

순위	시도	총득점	금	은	동	메달합계
1	경기	1,184	101	103	64	268
2	서울	871.5	47	52	64	163
3	강원	791.5	47	42	49	138
4	전북	511	20	19	21	60
5	부산	421	13	6	8	27
6	대구	325.5	11	9	10	30
7	전남	314	16	9	5	30
8	경북	259.5	3	4	3	10
9	충북	247.5	3	4	13	20
10	인천	234	4	5	8	17
11	충남	147	9	6	9	24
12	대전	146	0	0	4	4
13	경남	142	0	1	5	6
14	광주	91.5	0	1	0	1
15	울산	67	2	4	4	10
16	세종	55	3	5	1	9
17	*재호	6	0	0	0	0
합 계		5,814	279	270	268	817

Mini Interview

66

좋아하는 것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

‘꿈나무상’ 수상자 ‘김슬’ 선수



이번에 신설된 13세이하부 ‘꿈나무상’ 최연소 수상자인 컬링의 김슬 선수는 이제 막 3학년이 된, 만 9세의 어린 소녀다. 컬링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지만 보자마자 흥미가 생겼다고 한다.

운명이었을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지인의 권유로 컬링을 접한 후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수가 되었다고 한다.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컬링에서 훈련 하나하나가 재미있고, 하면 할수록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 매번 집중하며 훈련에 임했다. 그리고 두각을 보이며 많은 이로부터 기대를 받는 선수로 성장 중이다.

입문 후, 선수로서 처음 출전한 대회가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 축제인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였다.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선수로 구성된 의정부컬링스포츠클럽 소속의 주축으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생애 첫 출전 대회, 그것도 국내 가장 큰 대회에서 당당히 메달을 획득하며 ‘꿈나무상’까지 수상한 것이다.

김슬 선수는 꾸준히 훈련하고 실력을 키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장래의 ‘꿈’이라고 말한다. 부모님도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 당차고 재미있게 훈련하는 김슬 선수의 꿈을 응원한다.

# 모든 것에 진심으로 대한민국 '빙속'의 미래

## 정재원

### 올림픽-전국동계체육대회로 이어진 성공적인 마무리

대한민국 빙상의 미래라 불리는 정재원 선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종목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매스스타트, 5,000m, 10,000m, 팀 추월에서 우승하며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올림픽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정재원 선수, 좋은 성적이 주는 자신감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시즌을 마무리할 때면 '조금 더 할걸. 더 잘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정재원 선수가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를 준비할 때와 국내대회를 준비할 때 특별한 차이를 두고 준비하는지 궁금했다.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특히 이번처럼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루틴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구요. 올림픽 이후 조금은 긴장이 풀릴 수도 있는 상황 이어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동계체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집중했어요.”  
선수마다 다르지만 웬만해서는 큰 대회와 작은 대회를 구분하지 않고 매번 최선의 준비를 한다는 정재원 선수. 그는 긴장감을 잃지 않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그렇게 동계체전에 참가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동계체전에 계속 출전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동계체전에 출전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이번 대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출전한 이후 실업 선수가 되어 출전한 대회였어요. 주니어 시절, 동계체전이 열릴 즈음엔 항상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있거나 동계체전 전에 부상을 당해서 한 해 두 해 못 나가다 보니 동계체전에 출전하고 싶은 갈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과 함께 동계체전을 준비했어요. 동계체전에서 시즌을 잘 마무리해 정말 기쁩니다.”

정재원 선수는 오랜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2년 만에 열린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그는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5,000m, 10,000m, 팀 추월 경기에서 우승해 4관왕에 오르며 한국체육기자연맹 기자단 투표에서 53표 중 32표를 획득해 MVP 영예를 안았다.

글. 편집실

지난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정재원 선수, 올림픽에 이어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며 연이은 경쟁을 펼쳤다. 제법 힘들만도 한데 동계체전에 출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올림픽과 월드컵, 전국동계체육대회 등  
지난 시즌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저 '정재원'을 기억하실 때  
어리지만 운동에는 진심인 선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선수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 경기의 진중함을 아는 MZ세대 정재원

베이징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경기 직후 정재원 선수의 모습에서 무덤덤함이 엿보였다. 여타 MZ 세대처럼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인가 싶었는데 선수의 말은 달랐다.

“경기가 끝나고 전광판을 보니 1등과 5등 이후부터 기록은 표기되어 있는데 ‘2, 3, 4등은 비디오 판독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판독 이후 2등이나 3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등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나 봐요.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모습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1위 선수와의 차이는 불과 0.07초였다. 매스스타트에서 0.07초는 같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재원 선수는 이 대목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 바퀴에서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2등까지 치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자리를 잘 잡았더라면 0.07초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코로나19의 여파는 정재원 선수에게도 미쳤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파이널 대회 출전이 무산됐다. 출국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출전은 못했지만 파이널 4위에 랭크됐다. 올림픽-전국동계체육대회-월드컵 파이널 순



으로 목표를 정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출전했더라면 3위 안에 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재원 선수는 과정과 결과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다.

“조금은 애매해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경기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정이 없다면 결과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우문현답, 확고한 신념을 갖고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하는 그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 훈련, 경기, 그리고 잠 ‘집돌이’의 루틴

정재원 선수의 주 종목은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5,000m, 10,000m, 팀 추월 등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체력 소모가 필요한 장거리 종목이다. 종목 선택을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는 궁금했다.

“어릴 때는 종목을 정해놓고 타지 않았어요. 단거리와 장거리 종목 모두 잘 탔거든요. 마침 제가 흥미를 더 느꼈던 쪽이 장거리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각을 보인 종목도 장거리여서 자연스럽게 장거리 선수로 자리 잡게 된 듯해요.”

그렇다면 정재원 선수는 체력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

“저는 평소 운동량이 상당히 많은 선수 쪽에 속해요. 그래서 경기와 훈련이 없는 날, 즉 운동 외적인 시간에는 정말 아무 것도 안 하는 편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긴 편인데 체력 회복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정재원 선수는 ‘집돌이’라고 불릴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을 즐긴다고 한다. 고된 훈련 후 맞는 휴식 시간에 다른 또래들처럼 바깥 활동을 하며 즐겨도 될 텐데 집에 가만히 있거나 잠을 자는 것이 ‘휴식루틴’이라고. 그렇게 자신만의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고. 조금 더 외향적일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의 성격은 아직 어린 선수임에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한다.

또래와 있을 때는 다른 모습도 있다는 말을 덧붙이며 쇼트트랙 이유빈 선수와의 돈독한 친분도 들려줬다.

“유빈이는 종목은 다르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훈련한 동갑내기 친구예요. 제가 성인이 된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렸을 땐 시합을 망치면 의기소침해져서 다음 시합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유빈이가 다독일 땐 다독여주고 살짝 야단도 쳐가면서 용기를 줬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 경기 후에 짜릿함, 승리의 짜릿함을 알기에

정재원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들려줬다.

“선수라면 누구나 승리뿐 아니라 경기완주 후에 느끼는 짜릿함과 기록 갱신에서 오는 만족감을 기대하며 훈련하고 경기에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스케이팅 타는 것이 재미있다고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즐기면서 하다 보니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스피드스케이팅의 매력이라는 것이다.

“베이징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메달을 딸 거라는 기대는 안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준비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메달 욕심을 버리고 일부러 기대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메달 획득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포디움에 올라가자’라는 목표로 임할 생각이예요. 그리고 최대한 오래오래 선수 생활을 하고 싶고요.”라며 바람도 덧붙였다.

정재원 선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이다. 그의 바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찬 도전이 되고 지속되기를 응원한다. 그의 성장이 어디까지일지 아직 모를 일이다.

SPORTS1



Sports Policy  
Commitment



Sports Policy  
Commitment

Sports Policy Commitment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체육공약 집중 분석

글.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체육계 행사에 종종 참여했고 관련 정책도 여러 차례 내놓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체육 관련 행보를 한 것은 10여 차례다. 윤 당선인 측 체육정책을 분석한다.



## 정책 수립 기본 방향

균형과 조화로 압축된다. 체육 관련 과제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가르거나 정책 방향을 과거 정부와 다른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은 거의 없다. 정부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 투입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비해 스포츠 시장을 키우고 공공과 민간 사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성장·확장에 무게가 실렸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연결함으로써 복지를 강화하고 시장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 정책 분석 및 실행 포인트

**국민 스포츠 인센티브** 운동량에 따른 의료비 절감분을 건강보험료로 환급한다는 게 골자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측정과 데이터 기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정확한 운동량 측정 및 검증이 필요하다. 운동량을 측정하는 특정시스템을 개발한 뒤 인근 체육 시설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운동량으로 공인받을 수 있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개인은 더 운동하도록 유도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용 내역은 공급자와 사용자가 상호 인증 및 검증하는 식으로 집계되리라 예상된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원하는 기관과 현장 봉사자가 서로 인증하고 검증하는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흡사하리라 예상된다. 이처럼 체육시설 이용 내역을 상호 검증하면, 시설 이용 내역을 조작하기 힘들고 만에하나 조작할 경우, 양측 모두 책임져야 한다.

스포츠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겠다는 시도는 역대 정부 최초 시도다. 두 공약 모두 운동하면 의료비 절감, 노동생산성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인센티브 범위와 사회적 편익이 최적의 조건으로 들어맞는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청소년 및 노인체육활동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스포츠지도사 파견, 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초등체육교육 지원, 시니어 친환경 스포츠인프라 확대 등이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강화는 앞선 정부들이 소홀히 다룬 부분이다. 현재 초등 1·2학년에는 체육 과목이 없다. '즐거운 생활'이라는 과목에 신체활동이 약간 들어 있을 뿐이다. 유아교육에서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진 신체활동이 초등 저학년에 들어오면서 후퇴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개정, 초등체육교원 추가 확보, 체육수업 비중 강화가 필요하다. 유아체육 전문가 전선혜 중앙대학교수는 “체육교육이 교육과정에 비중있게 반영되는 게 핵심”이라며 “현장 전문가가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투입돼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웃도어 레저스포츠지원** 파크골프장 확충, 낚시 규제완화 및 활동 지원, 캠핑 활성화가 세부정책이다. 파크골프장 확충은 이재명 후보도 비슷하게 내놓은 정책이다. 파크골프는 최근 들어 많은 노년층이 즐기고 있다. 천변 등 유희지를 이용해 파크골프장을 더 지을 필요는 있다. 낚시와 캠핑 인구도

증가세다. 환경 훼손을 피하면서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금까지 규제 중심으로 제한된 아웃도어스포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레저스포츠가 활성화하면, 스포츠 시장이 확대되고 일자리도 증가한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스포츠 활동도 장려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 공약에는 파크골프, 낚시, 캠핑만 나와 있지만 향후 자전거, 달리기, 등산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체육재정 확대** 국가 체육재정은 세금과 기금(체육기금)으로 충당된다. 체육기금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체육진흥투표권(토토)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다. 2021년 중앙 정부 체육 예산은 1조 7,594억 원이다. 그중 세금은 1,636억 원뿐이고 나머지 1조 5,958억 원이 체육기금으로 충당됐다. 바로 그 1조 5,958억 원이 2020년 체육기금(총 4조 1,186억 원) 중 토토로 거둔 수익이다. 7~8년 전부터 체육기금 중 일부가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또 체육기금 중 상당액이 매년 유보금으로 정부 곳간에 쌓이고 있다. 손석정 전 남서울대 교수는 “체육기금은 체육계에 투입돼야 하는 목적기금”이라며 “더 많은 체육기금이 체육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 지원 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

로 육성한다. 운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 스포츠 복지를 강화한다는 정책이다. 시니어 스포츠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아지면 고령화 시대 노년층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재검토** 스포츠혁신위는 2019년 정부 유관기관을 등에 업고 학생 선수 활동을 크게 위축하는 정책들을 과도하게 밀어붙였다. 이게 전문체육계, 학생운동부로부터 반감을 초래했다. 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는 학생 선수가 선수로서 꿈과 학생으로서 학습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추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 당선인은 전면 재검토를 거론했다.





**e스포츠, 미래산업으로 육성** 관련 대학 학과 개설, 지도자 자격증 제도 도입, 체육진흥투표권(토토)에 e스포츠 추가, 상무팀 창단 지원 등이 담겼다. 한국에는 세계 정상급 e스포츠 선수들이 많고 글로벌 인기를 끄는 e스포츠 게이머도 적잖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종목과 상관없이 많은 글로벌 스포츠단체들이 e스포츠 활성화를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비하면 약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으로 e스포츠 육성책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전문체육 육성 관련 정책들** 실업팀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 체육인공제회 설립, 실효성 있는 스포츠인권 문제 신고 시스템 구축, 스포츠팀 창단·운영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서비스 공급자인 전문 체육인과 소비자인 생활체육인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국민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계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법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부 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총 7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체육은 사회복지문화에 들어간다. 사회복지문화 인수위원 3명 중 체육계 인사는 없다. 스포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혼자 힘으로만 수행할 수 없다. 교육부(학교운동부, 체육수업, 체육시설), 보건복지부(영유아노인·장애인·임산부 운동), 행정안전부(공공 체육시설), 국토교통부(체육공원, 등산로), 해양수산부(해양·수상스포츠), 국방부(체육부대), 환경부(아웃도어 레저스포츠)와 협조가 절실하다. 체육 관련 공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후 거버넌스 구축이 무척 중요한 이유다.

지난 2월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위원으로 참석한다. 동시에 문체부 2차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차관조정회의도 열린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체육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대희 부경대 교수는 “국무회의 수준의 국가체육정책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 운영할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스마트헬스케어, R&D 기반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가 필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빠진 점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에는 나오지 않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내 체육국 비중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돼야 함은 물론이다. **SPORTS1**

## SPONOMICS

미래 먹거리,  
스포츠에 길을 묻다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얼마나 될까?

영국의 사우스요크셔 카운티에 위치한 셰필드. 이 도시는 돈강과 시프강의 합류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데, 풍부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일찍부터 제강업이 발달했다. 특히 산업혁명 후에는 영국의 대표적 중공업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철강산업의 급격한 하락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은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다 약 20여 년 전 셰필드시는 유럽연합(EU)의 도시재생펀드를 유치해 각종 경기장과 생활체육단지 등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 관광과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영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시티’로 자리 잡았다. 스포츠를 공연, 이벤트, 관광 등과 연계해 경기장 활용도를 크게 높였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동반 성장하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 미디어렐사인 메조미디어의 ‘2019 스포츠 마케팅 트렌드’에 따르면 세계 스포츠 산업 시장규모는 2017년 1,473조 원에서 2018년 이후에는 약 1,500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국제 대회는 물론 유럽 축구리그, 미국 슈퍼볼 등 특정 국가의 스포츠 이벤트도 국경을 넘어 막대한 중계권료 및 시청자를 확보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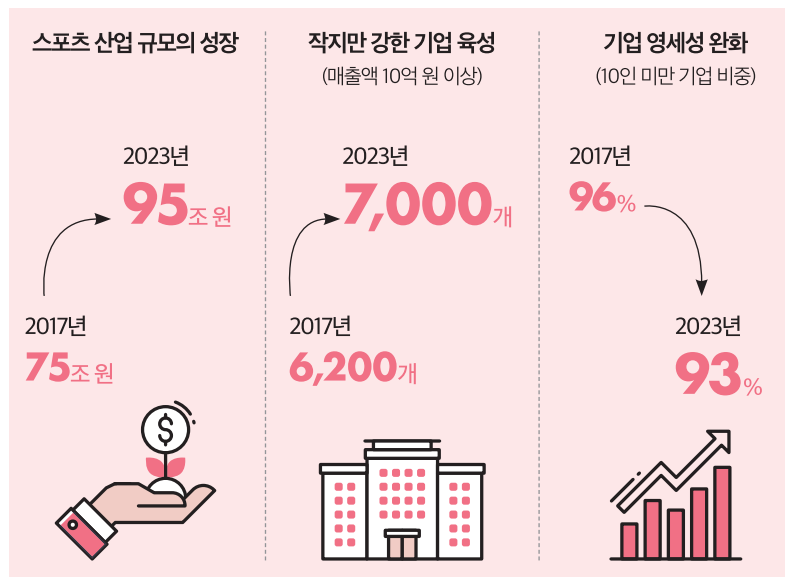
스포츠노믹스는 ‘sports(스포츠)’와 ‘economics(경제)’의 합성어로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는 현상이다. 최근 스포츠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이벤트, 관광,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융·복합하며 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떠오르는 미래 먹거리, 스포츠노믹스에 대해 알아본다.

## 우리나라, 스포노믹스에 주목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대경제연구원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관련 직접적 투자 및 소비 효과는 21조 원, 간접적 효과는 44조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개최 이후 평창과 강릉은 주요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올림픽 개최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년 스포츠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는 74조 7,000억 원으로 5년간 연평균 3.6% 성장을 보였다. 스포츠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긴밀하게 스며들면서 관광, 엔터테인먼트,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스포츠기업은 대부분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고, 해외 수출은 전체 매출액의 2% 미만에 그치는 등 내실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시장 규모 확장', '기업의 영세성 완화', '작지만 강한 기업 육성' 등 3가지 목표를 수립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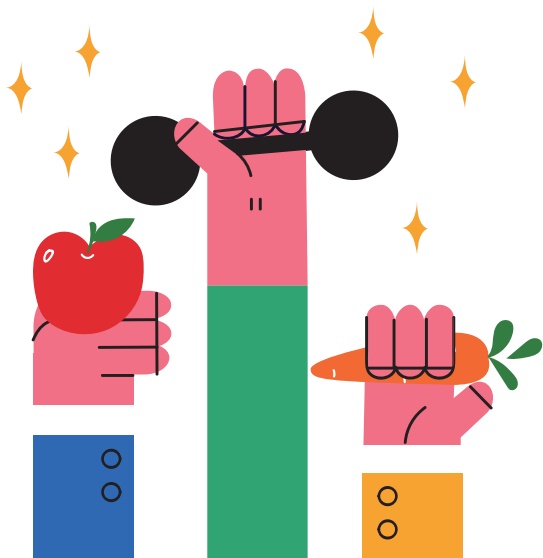


## 경제가 이끄는 스포츠 No! 스포츠가 이끄는 경제 Yes!

현재 스포노믹스 시장은 1인 가구와 옴로(YOLO; You Only Live Once)족의 증가에 흐름이 맞춰 있다. 건강을 중시하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되면서 생활 스포츠는 물론 프리미엄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을 유지하며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인 '액티브 에이징'은 스포노믹스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스포츠 관광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시도·군 등 지자체들은 스포츠를 관광과 먹거리 등과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 삼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유적 등을 감상하는 형태에서 현지 이벤트, 스포츠 활동 등에 참여하는 동적인 유형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스포츠의 참여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만의 장점을 살린 특화전략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스포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경제가 이끄는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가 경제를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스포노믹스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기대된다. SPORTS1







# 모두가 함께하는 농구동호회를 꿈꾸다 ABC 농구단

글. 편집실

2013년 탄생한 ABC 농구단은 선수 중심의 농구와,  
누구나 편안하게 농구를 즐길 수 있는 동호회를 지향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의  
농구를 실천하는 ABC 농구단의 정창우 단장을 만났다.

## ABC 농구단

### 온라인 활동(카페 주소 등)

네이버 밴드 'abc 농구단'

### 동호회 조직일

2013년

### 동호인 수

60여명

### 모임 주기

(정기모임 / 비정기모임)

매주 토요일 3~6시

### 대회 혹은 연례활동

자체 리그 정기전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운동처방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고, 부산시 사상구 농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ABC 농구단의 정창우 단장입니다.

활동 중이신 동호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울 텐데 현재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ABC농구단은 2013년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약  
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6시까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ABC 농구단' 채널을 활용해서  
모임의 공지나 소식 등을 공유하고요, 새로운 신입  
회원의 가입이나 동호회에 접근하는 방식은 네이버  
카페인 'NSB 농심 카페'나 당근마켓의 취미생활 코너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순수 동호회다 보니  
SN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또  
주기적인 관리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동서대학교 체육관에서 주로  
토요일에 모여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모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학교 체육관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끔 사설 체육관에 모여 운동하며  
동호회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BC 농구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동호회원들의  
참여 계기에 대해 들으신 바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제가 2013년도에 농구를 많이 했거든요. 다른 일반 팀과  
전국대회도 나가면서 활발하게 활동 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는 일반인이  
농구 동호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농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NSB  
농심카페' 등에 글을 올리면서 부담 없이 함께 농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농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여 운동을 하다 보니 실력을 맞추는 게 좀  
어렵기도 했어요. 동호회를 만든 목적이 농구를 하고  
싶은데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농구를 하게끔 돕고  
싶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호회들은 '대회에서 성적을 내고, 우승하고  
싶다'는 목적이 많은데 우리는 대부분 같이 즐기고  
마음 맞으면 대회도 나가는 등 초보 농구인들과도 함께  
즐기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 역시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사실 몇몇의 동호회는 텃세도 있고 초보자가 가면 어색하기도 하거든요. 실력이 있는 회원들만 시합을 뛰거나 같이 운동할 때도 주도적으로 활동하니까 초보자들은 대부분 벤치에 앉아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 동호회는 무조건 연습할 수 있는 쿼터를 보장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서로 지도를 해요. 제가 지도하기도 하고, 제 제자들도 동호회 활동과 지도를 하며 실력 향상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코로나19로 활동을 쉬었는데도 회원들이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이 생활체육으로서 농구의 매력을 궁금해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올해 나이가 마흔 둘이에요. 저처럼 40대들은 대부분 농구 붐 세대입니다. 어릴 때 '슬램덩크'라는 만화책도 접했고,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도 봤어요,

이렇게 자주 접하다 보니 농구에 대한 로망이 생겼어요. 농구대잔치,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도 그렇고요. 또 농구는 팀 스포츠로서의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팀 전술이 있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등 그 매력이 다양해 농구를 좋아하는 듯합니다.

###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일이나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동아리 활동 지역이 부산인데, 동호회를 만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동호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냥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끼리 시작한 운동모임이나 대학 동아리, 고등부 팀 등 일반 동호회가 강세였지요. 우리가 시작하고부터는 소위 인터넷 동호회라고 하는, 그 전과는 다른 아마추어 동호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정착했고요.







###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는 장점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운동을 쉬다 보니 '농구가 그동안 나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처음에는 운동을 좀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했는데 잠정적 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근육이 다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게 되니까 회원들이 빨리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해요. 생활체육 측면에서 농구는 정말 체력을 강화하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눈으로 즐기지만 했을 때와 달리 직접 코트에서 뛰었을 때 오는 만족감도 매우 크고요.

### 다른 동호회와 달리 우리 동호회 만이 가진 강점 혹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더불어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회원들이랑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무대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많은 실내 체육시설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 운동 장소가 부족해요. 커뮤니티를 활용한 시설 체육관의 활용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체육관을 통해서 운동 시간을 보장하며 함께 건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농구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시청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했으면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활체육 부분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마이너리그 무대를 만들어 대회도 개최하고 싶고요. 순수 생활 체육인들끼리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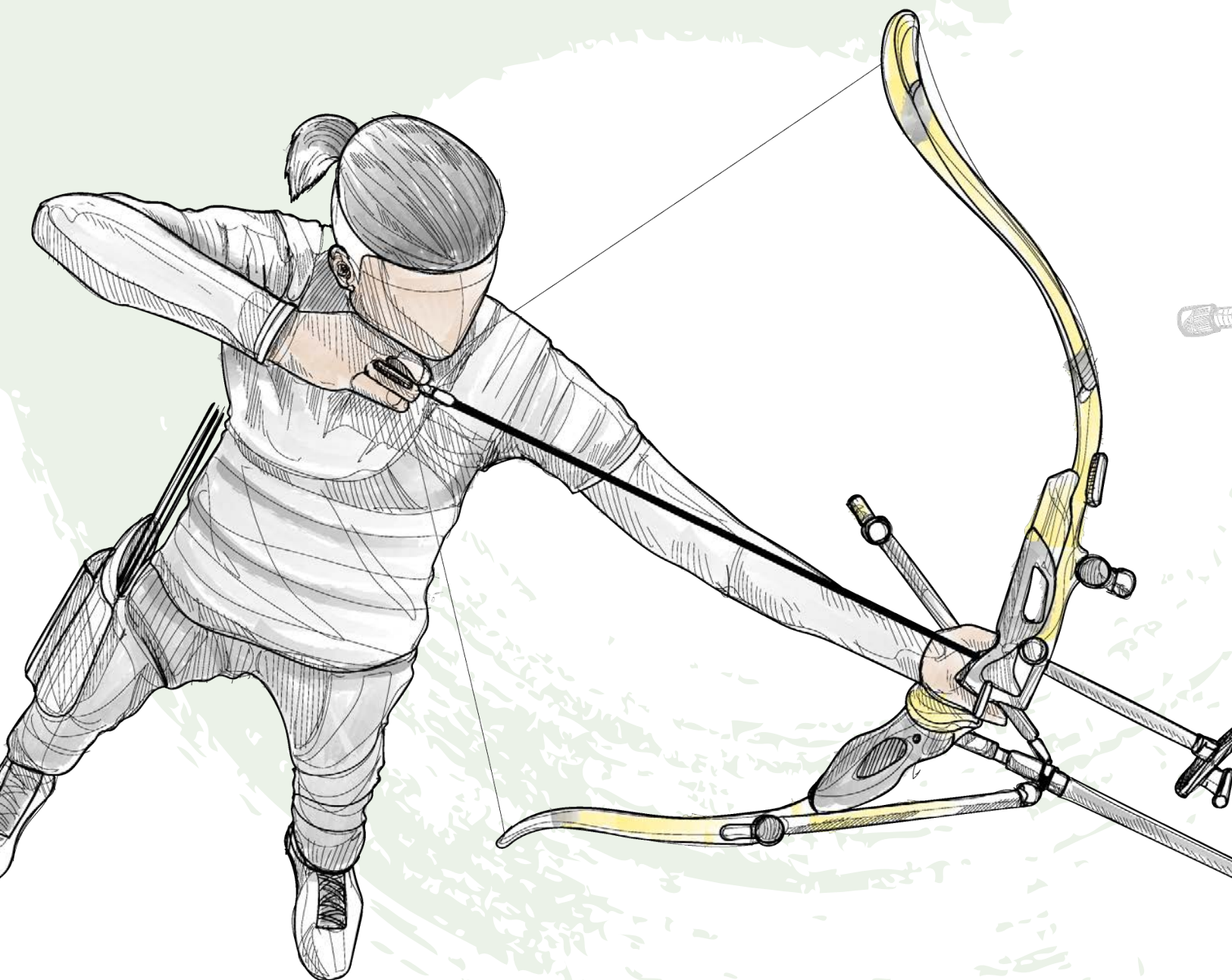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동호회 활동에 마음이 있는 미래의 동호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동호회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른 동호회에서 종종 느끼는 텃세나 어색함,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곳이고요. 가입과 동시에 같이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 복장이 아니더라도 전문 운동화 없이도 언제든지요. 그렇게 서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함께 농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세요. 두 팔 벌려 마중하겠습니다. **SPORTS1**



실력이 느는 만큼  
장비도 진화한다

양궁 선수들이 쓰는 활



글. 편집실

양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올림픽 금메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다. 실제 역대 올림픽에서 27개의 금메달(2020 도쿄올림픽 기준)을 따내 26개(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기준)인 쇼트트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양궁은 최고의 실력과 최첨단 기술의 만남으로 더욱 진화하고 있다.

##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마치 헤엄치는 물고기 같다

양궁은 영어로는 일반적인 활을 가리키는 'Archer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국궁(國弓)과 구별하기 위해 서양을 가리키는 한자어를 앞에 붙여 양궁(洋弓)이라고 표현한다.

활은 반달 모양의 활대 양 끝을 시위라 불리는 줄로 묶은 형태로 돼 있다. 화살을 쏠 때는 시위에 화살을 걸어 힘껏 당긴 후 놓으면 된다. 얼핏 고무줄 총처럼 시위가 탄력 있게 늘어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활은 활대의 탄성을 이용해 화살을 날리는 도구이지 시위의 탄성과는 무관하다.

화살을 당길 때는 강한 힘이 활시위에 저장돼 있다가 시위를 놓는 순간 화살에 힘이 실려 멀리 날아가게 된다. 화살이 날아가 때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과녁에 맞추려면 약간 위를 조준하고 발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 과녁에 도달할 때까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포물선 궤도는 발사각도와 과녁까지의 거리, 화살을 당기는 힘, 화살의 무게 등의 영향을 받는다.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 보면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날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궁사의 패러독스(Archer's Paradox)'라 한다. 시위를 놓는 순간 화살의 꼬리 부분에 강한 힘이 전달돼 화살 앞쪽을 앞서려는 운동으로 심한 흔들림이 나타나게 된다. 화살을 과녁에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포물선 운동은 물론 궁사의 패러독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화살을 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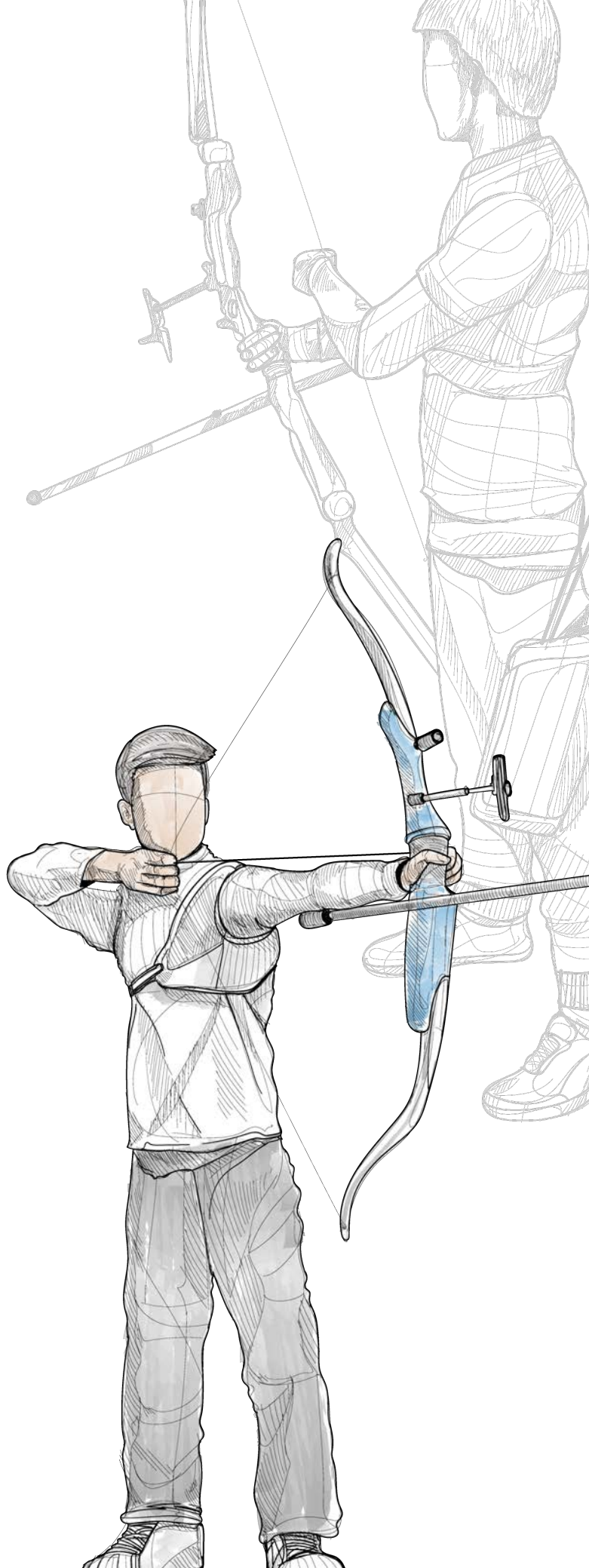
## 선수들이 사용하는 활은 뭐가 다를까?

활은 크게 날개(림)와 핸들(몸체)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중 '림'은 활의 생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림의 탄성과 좌우 밸런스 등의 미묘한 차이가 선수들의 감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궁 경기에서 사용하는 활은 크게 종목에 따라 양 끝이 반대로 휘어 있는 리커브 보우(Recurve bow)와 보조 장치가 달려 있는 컴파운드 보우(Compound bow)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기계적 요소 없이 전통 활로 손가락으로 시위를 당겨 발사하는 리커브 보우다. 리커브와 컴파운드는 활을 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리커브는 손가락의 힘을 이용해 활을 쏘기 때문에 작은 떨림에도 민감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컴파운드는 릴리션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활을 쏘기 때문에 떨림도 적고 정확도가 높다는 것과 도르래 등 보조기구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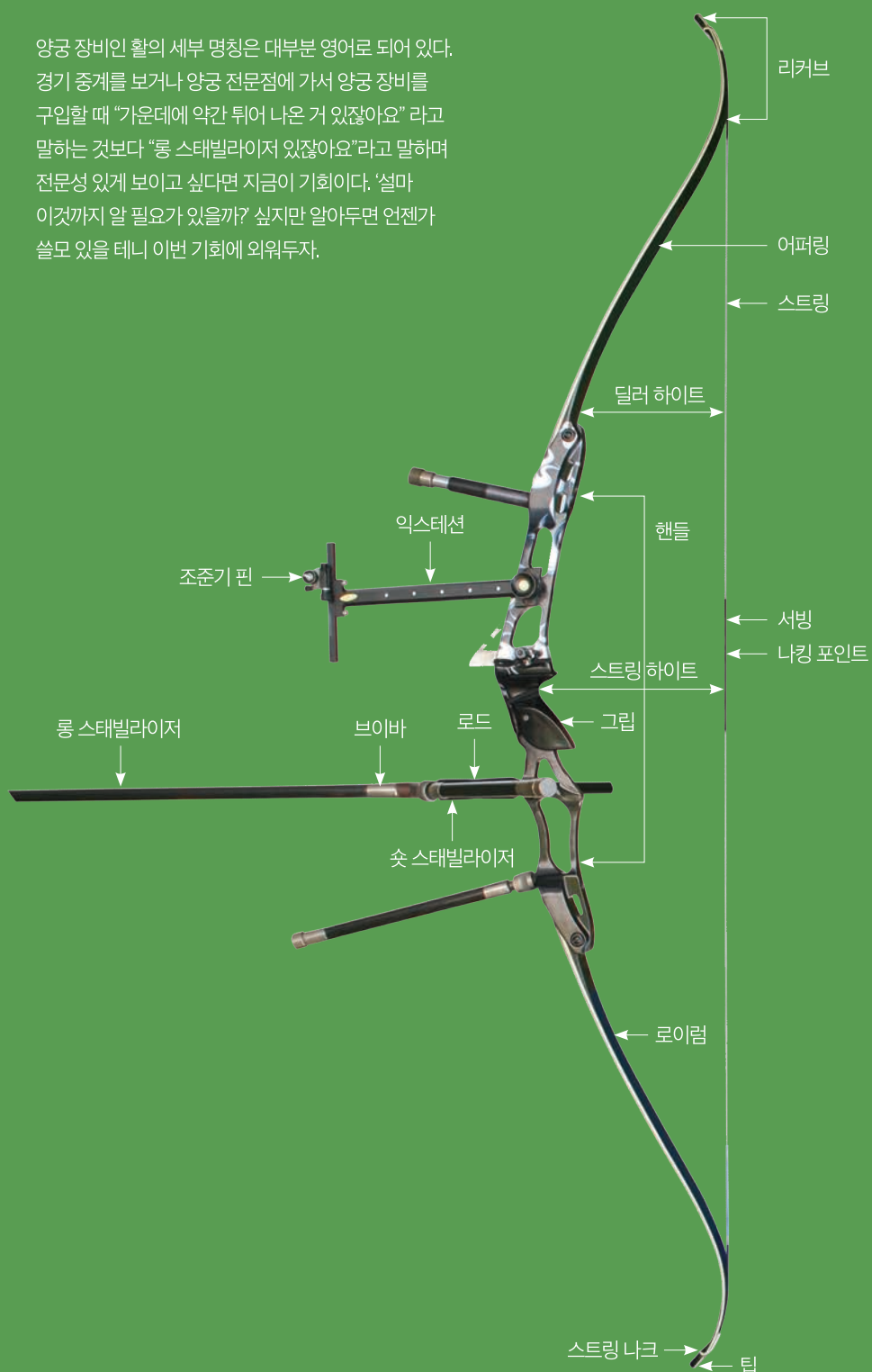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용한 장비는 국산 제품이다. 선수들의 실력과 함께 진화한 국산 장비는 세계 최강의 실력뿐 아니라 양궁 장비 시장에서도 세계 최강을 자랑한다. 국산 활에는 신비로운 탄소 소재인 그래핀이 적용되어 있는데 카본 소재 활보다 충격흡수율은 높이고 진동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육각형 벌집 모양의 2차원 평면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한 강도와 뛰어난 탄성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이다. 이 때문에 비행기, 자동차, 건축자재 등에 사용된다. 이 밖에도 탄소 섬유 전투복, 2차 전지용 전극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어서 향후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국가대표의 공정한 선발, 적극적인 지원, 특히 선수들의 심리적 강인함에 있다. 더불어 과학의 발달에 따른 장비의 진화도 한 축을 담당한다. 좋은 경기를 위해 용구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성능이 우수해 적응률이 높아야 한다. 활과 화살,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야 기록을 높일 수 있으므로 팔의 힘과 길이 등을 감안해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하고 적응해야 한다. 위축되지 않는 실력이 가장 먼저임이 당연하다는 것도 잊지 말자. **SPORTS1**



## ‘활’의 명칭 알아보기

양궁 장비인 활의 세부 명칭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다. 경기 중계를 보거나 양궁 전문점에 가서 양궁 장비를 구입할 때 “가운데에 약간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롱 스테빌라이저 있잖아요”라고 말하며 전문성 있게 보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이다. ‘설마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 있을 테니 이번 기회에 외워두자.



# 환경을 품은 스포츠 그리고 지속가능성

글. 편집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는  
글로벌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 순제로'를 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내놓고 있다. 이렇듯 환경 문제는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환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이에 <스포츠원> 3월호에서는 스포츠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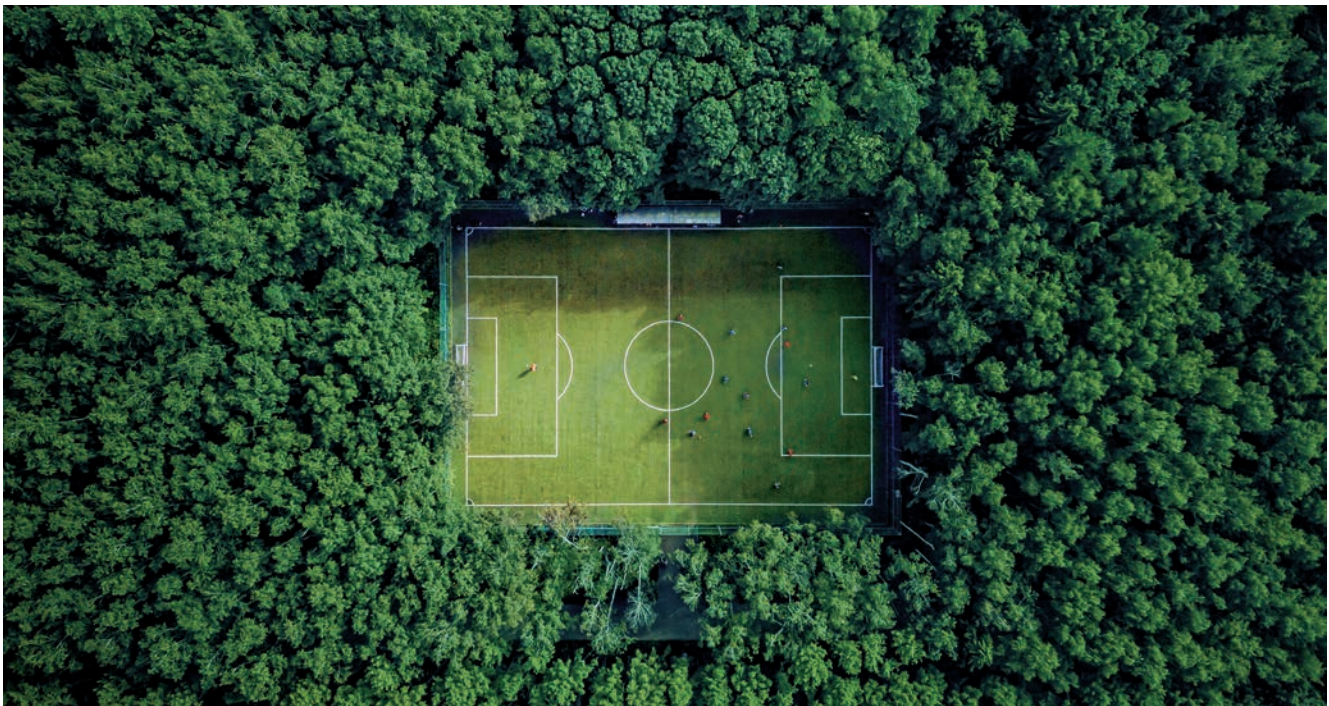
## 환경을 생각하는 스포츠 대회

환경, 지속가능성 그리고 효율성은 현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피나는 노력과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의 세계 역시 다르지 않다. 스포츠 역시 승리 그 이상의 가치,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품어야 하는 시대다.

스포츠와 환경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많은 사람이 스포츠와 환경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의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배출된다.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메가 이벤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림픽에 지속가능성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4년 릴레함메르동계 올림픽이었다. 당시 올림픽조직위는 나무를 한 그루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96년 올림픽 헌장에 환경 보호 내용을 추가했다.

2016 리우올림픽 조직위는 최초의 남아메리카 올림픽대회를 '녹색 대회'로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식재료 사용과 대회 관계 물품 재료의 제한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자동차 사용도 가능한 줄이고자 했다. 이러한 올림픽 친환경 이슈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이어졌다.







1

### 축구, ‘그린’ 라이트를 밝히다

#### Mazingira Cup 축구 토너먼트 대회 | 2022 카타르 월드컵

201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Mazingira Cup’ 축구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 사전행사가 진행됐다. 미래 주체인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축구 드리블 강좌에 참여하며 지구, 공기, 물과 같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파괴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혁신적인 경기장을 만날 수 있다. 경기장 이름은 ‘라스 아부 아부드 스타디움’으로 수도 ‘도하’에 있다. 주요 재료는 화물 컨테이너로 대회가 끝난 뒤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착탈식 관중석 의자, 지붕 등도 모두 해체해 다른 시설물의 재료로 쓸 예정이다.

세계 언론은 이곳을 두고 ‘월드컵 사상 최초로 철거를 계획하고 건설했다’고 소개했으며, 국제축구연맹(FIFA)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혁신적’이라고 말했다.



2

### 골프,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 PGA | LPGA

미국 PGA에는 친환경, 재활용을 콘셉트로 한 골프대회가 있다. 바로 ‘웨이스트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이다. 미국 최대 쓰레기 수거 및 리사이클링 회사 웨이스트매니지먼트는 2010년부터 PGA를 후원하고 있는데, 해당 대회는 무려 7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친환경, 재활용 콘셉트 골프대회답게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주제로 진행된다. 실제 코스 내외에는 누구나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약 4,000개의 재활용 수거함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이 수거함 역시 재활용 골판지로 만들었다. 이밖에 재활용을 모티프로 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LPGA의 HSBC Women's Championship 역시 대회를 후원하는 스폰서 사와 함께 환경을 염두에 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재활용 가능한 상품,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과 같은 활동을 진행한다.



출처 :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3

### 스포츠 브랜드, 친환경에 꽃히다

#### 아디다스 | 나이키

최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은 친환경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폐기물을 줄이고, 재생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브랜드로 각인되면, 시장에서 상상 이상의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디다스’는 팔리포디오션(Parley for the Ocean)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한다. 해당 프로젝트로 탄생한 대표적인 제품인 ‘울트라부스트’는 해양 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소재로 만들었는데, 2018년부터 500만 켤레를 생산했다.

‘나이키’는 탄소와 폐기물을 0으로 줄이겠다는 ‘무브투제로(Move to Zero)’ 캠페인 아래,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한 ‘베이퍼맥스’를 선보인 바 있다. 베이퍼맥스는 독특한 컬러가 돋보이는 갑피 부분에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했다. 또한 ‘컨버스’를 인수하면서 시그니처였던 ‘척 테일러 클래식’을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교체했다. **SPORTS1**

# 체육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다

## 문산제일고등학교

### 100년의 역사, 그리고 시대에 발맞추다

글. 편집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문산제일고등학교는 100년의 역사 속에서 '바른 인성과 자기주도적 능력을 갖춘 민주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학교 임직원 및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이다. '제일을 위해! 제일을 향해! 제일이 되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김세권 교사를 만나 체육 특성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먼저 김세권 선생님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산제일고등학교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김세권입니다. 저는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능곡중학교, 해솔중학교를 거쳐 2019학년도에 이곳 문산제일고등학교에 발령받아 현재 체육교육 특성화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문산제일고등학교는 언제 체육교육 특성화 과정을 시작했는지, 그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우리 학교는 2019년부터 학교 자체 예산을 꾸려 체육중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지정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로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도 파주시 지역의 주요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며 골프, 볼링, 스포츠클라이밍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산제일고등학교가 체육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이나 수업을 선택해서 듣게 될 텐데요. 국어, 영어, 수학뿐 아니라 체육 교과목에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구요.

### **특성화교육, 다양성을 제공하다**

**학년 별 학교체육 특성화교육 과정과 학생 수, 지도하는 교사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더불어 교과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2학년 1학급(18명), 3학년 1학급(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은 운동과 건강 수업과 함께 체육 전공 실기 기초 과목을, 3학년은 스포츠생활과 체육 전공 실기 응용, 체육 전공 실기 심화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총 다섯 명의 체육교사가 있는데요, 그중 두 명의 교사가 체육특성화학급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체육 중점 수업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으로 계절스포츠 체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는 수상레포츠 체험으로 카약, 패들보드 체험을 했고, 겨울에는 스키, 스노우보드 강습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동 중 스포츠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스포츠테이핑 수업도 진행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일단 수업과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체육 관련 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나 체육, 스포츠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에 대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고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혹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관련된 역량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더불어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수준, 진로와 직업 등으로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상황이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지난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활동이 여의치 않았어요. 또 긴 장마로 인해 수상레포츠 활동도 쉽지 않아 체험을 포기하기도 했고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야외 특별활동을 위해 대안을 찾고 학생들에게 승마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3학년 체육특성화 학급 학생들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탁구릴레이 부문에 참가해 우승했던 것도 좋은 추억이 되었고요.



## 학생의 행복을 위한 바람을 담다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체육, 스포츠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본인의 진로, 적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더불어,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문산제일고등학교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요구에 대응하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본교에 입학해 다양한 체육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SPORTS1**

### 문산제일고등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

학년	학기	교육과정 교과목	비고
2학년	1, 2	체육전공실기 기초(3시간)	체육과 계열탐색
3학년	1, 2	체육전공실기심화(4시간) 체육전공실기응용(3시간)	체대입시 준비반

구분	활동
교육과정 내 프로그램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체육활동 (골프, 볼링, 스포츠 클라이밍, 수영 등)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스포츠 테이핑 수업, 승마체험, 하계스포츠 체험, 동계스포츠 체험, 스포츠지원단 봉사활동 프로그램 (학생자치 체육활동 운영)



## 스포츠 중계, 우리는 OTT로 본다!

글. 편집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over-the-top media service;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림픽이나 국가대표팀 축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기는 물론 마니아가 즐기는 종목들까지 OTT로 즐기는 구독자가 늘고 있다. 최근 OTT 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스포츠 중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 스포츠, TV 가고 OTT 온다

‘본방사수’ 시대가 저물면서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OTT 시장이 커지고 있다. 세계 OTT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무려 300개 이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경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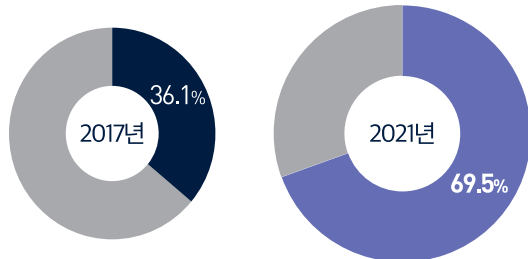
국내 OTT 시장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 산업은 2014년 1,926억 원에서 2017년 4,149억 원, 2020년 7,801억 원으로 연평균 26.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OTT 이용률 역시 가파른 증가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방송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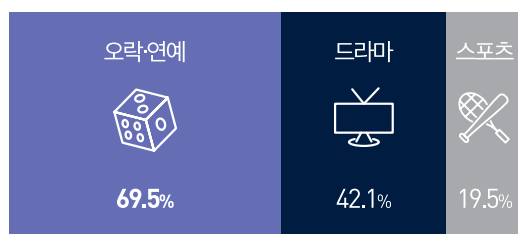


## 2021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

### OTT 전체 이용률



### 프로그램 유형별 OTT 이용률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행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36.1%에 불과했던 OTT 이용률은 2021년 69.5%로 꺾충 뛰었다. 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오락·연예(69.5%), 드라마(42.1%), 스포츠(19.5%)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한 OTT 서비스는 유튜브가 65.5%로 가장 높았고, 넷플릭스(24.0%), 티빙(4.4%), 웨이브(4.4%)가 뒤를 이었다. OTT 이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는데, 특히 중장년층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50대 이용률은 5.5%p 올라 68.6%, 60대는 6.1%p 올라 44.4%를 기록했다. 이렇듯 OTT의 일상화가 이뤄졌지만 현재 대부분의 콘텐츠는 드라마와 영화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채널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나열할 때,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개척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최근 OTT 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스포츠 중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OTT는 가입자가 힘이고,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도 있다. 모바일인덱스 분석에 따르면, 티빙의 경우 ‘유로 2020’을 중계하는 동안 새로운 타깃층인 20, 30대 남성 이용자의 비율이 14.49%에서 16.44%로 증가했다.

## OTT, 살아남기 위한 진짜 ‘오징어게임’이 시작됐다

OTT의 성장 이유는 첫째,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저렴한 비용이다. 1만 원 전후의 금액이면 영화, 방송, 스포츠 중계, 다큐멘터리 등 방대한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셋째, 원하는 콘텐츠만 시청할 수 있다. TV는 방송사가 내보내는 콘텐츠만 시청해야 하지만 OTT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넷째,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시청한 이력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기 때문에 선택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OTT 스포츠 중계 방송의 성장은 실제 콘텐츠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경우 네이버 스포츠 페이지, 웨이브, LG유플러스 U+모바일tv, 아프리카TV 등의 OTT에서 생중계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쿠�팅플레이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월드컵 예선, 2021 코파아메리카, 프랑스 리그앙, 미국 미식축구를 중계했으며, 대한축구협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축구대표팀의 2022 월드컵 도전을 담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나섰다. 티빙은 유로 2020 경기, 프랑스 오픈 테니스 등을 중계했다.

그렇다면 스포츠가 OTT 콘텐츠로서 가진 매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스포츠가 가진 지속성을 꼽는다. 스포츠는 생중계뿐만 아니라 다시보기, 하이라이트 클립 등을 통해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유럽의 스포츠 빅데이터 기업 델타트레는 2019년 ‘Where the money is going(돈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리포트에서 OTT 기반으로 변화할 중계 시장을 전망하며 “단순히 경기를 스트리밍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생중계가 없을 때에도 편집 콘텐츠를 다양한 유형의 팬에게 맞춤 제공해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포츠 팬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반갑다. 하지만 스포츠 중계만 보려고 OTT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 평소 자신의 콘텐츠 소비 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스포츠를 품고 있는 OTT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SPORTS1**

# 어서 와! '대한체육회TV'는 처음이지?



귀여운 꼬물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을 책임져요!

## 건강에 날개 달기 - '평생 회원권' 시리즈

하루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환절기, 자칫 방심하면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연령과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하기!  
대한체육회TV는 건강에 날개 달기 - '평생 회원권 시리즈'를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평생체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운동은 그만!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도 하고 매직 테니스를 즐기고...  
전문 생활체육 강사를 따라하다 보면 건강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바로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글. 편집실

OTT만큼이나 재미있는 콘텐츠가 가득한 대한체육회 공식 SNS 채널.  
이달에는 공식유튜브 '대한체육회TV'의 '핫'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립니다.  
<스포츠원>과 함께 QR코드로 즐겨볼까요?



## 무조건 소장각! 대한체육회TV에서만 공개하는 국가대표의 숨은 모습! 이런 모습 처음이야! - '나는 유튜버다' 시리즈

좋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나만 볼 수 있다면!

스포츠 팬으로서 이보다 짜릿한 일이 있을까요?

대한체육회TV에서만 공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숨은 모습, '나는 유튜버다'

양예빈의 원탑 아이들은 누구? 복싱 국가대표 선수의 '귀신의 집' 체험 등등.

제목만 들어도 '꿀잼'을 보장하는 콘텐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SPORTS**



바로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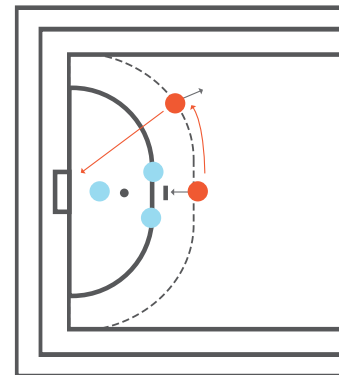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명승부를 펼쳤던 여자핸드볼 선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체력적 열세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은 단합된 힘으로 최고의 경기를 펼치며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렇듯 팀원과의 협력이 만들어내는 감동은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다. 탄탄한 팀워크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드는 구기종목 팀플레이를 소개한다.

## 모두가 만든 승리의 전술 — 팀플레이



### 1 HANDBALL (핸드볼) 콤비네이션 공격

핸드볼에서 볼을 가진 공격수가 돌파, 패스 등의 동작으로 수비수들을 유인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기술이다. 2:2 콤비네이션 공격, 3:3 콤비네이션 공격, 4:4 콤비네이션 공격 등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2:2 콤비네이션(일자 수비 상황) 공격 중 한 가지 경우를 예를 들면 볼을 가진 공격수가 돌파 동작을 통해 수비수 두 명을 유인한 뒤 다른 공격수에게 패스해 공격 기회로 연결한다. 이때 처음 돌파하는 공격수가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면서 두 명의 수비수를 유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듯 공격수들은 짧은 순간 돌파, 패스 등의 연속적인 공격 동작을 통해 수비수를 따돌려야 하기 때문에 공격수 간 능숙한 협업은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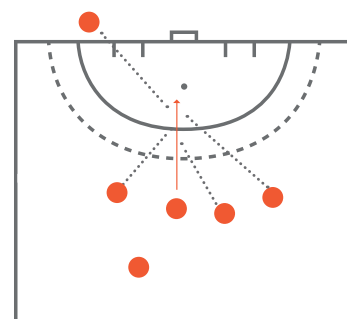


## 2 HACKEY (하키) 페널티 코너

하키에서 페널티 코너는 수비 진영에서 수비수가 서클 안에서 파울을 범했을 때 주어진다. 이때 수비 진영은 수비수 4명과 골키퍼 1명만이 방어할 수 있다. 공격 진영은 골키퍼를 제외하고 인원 제한 없이 페널티 코너에 참여해 득점 기회를 살릴 수 있다. 페널티 코너는 전담 슈터가 한 번에 슈팅(드래그 플릭, 히트 등)을 할 수도 있고, 세트플레이(골대 양쪽 터치 숏, 슈터가 슈팅하는 페이크를 주고 공을 옆으로 돌려 제2지점에서 슈팅 등 다양한 플레이 적용 가능)를 시도할 수도 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 찬스! 세트플레이의 경우 공격 진영 선수들의 빠른 시간 안에 페이크를 주고 공을 패스하는 동작 등을 통해 골키퍼를 속이고 보다 확실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야 하기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공격수 간 환상의 팀워크와 능숙한 플레이가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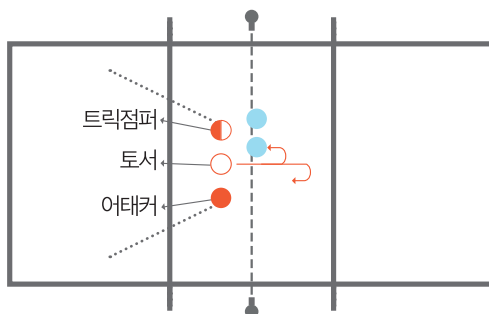


© 대한하키향회



## 3 VOLLEYBALL (배구) 시간차 공격

배구에서 상대 수비수들이 예상한 스파이크보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하는 공격 방법이다. 공격수들이 페이크 동작을 통해 상대팀 수비수들의 블로킹을 무력화 시켜 공격 성공률을 높이는 것. 공격수들은 시간차 공격을 통해 수비수들의 블로킹이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후 코트의 빈 공간을 노린다. 이때 상대를 속이기 위한 트릭점퍼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터가 공을 띄우면 트릭 점퍼가 노력한 동작으로 상대 수비수의 시선을 유도하고, 그 순간을 노려 진짜 어태커가 스파이크를 날린다. 토서와 트릭점퍼, 어태커가 한 몸인 것처럼 움직여야 하기에 선수 간 호흡이 무척 중요하다. **SPORTS1**



# 마라톤, 감자로 감~ 잡았어!



글. 편집실

봄은 마라톤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야외활동을 하기에 크게 덥거나 춥지 않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 흐르는 땀을 씻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마라톤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가 있다.

바로 감자다. 마라톤할 때 지치지 않고 완주하고 싶다면,  
감자로 마라톤의 감을 확~ 잡아보자!

## 마라톤 전후, 감자 드셔보세요!

운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단시간 최대의 스피드와 힘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꾸준한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종목도 있다. 특히 마라톤은 최소 1시간 이상 장거리 레이스를 해야 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우리 몸은 대략 2시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에 저장된 에너지를 거의 소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이상의 운동을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신체에 비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감자와 마라톤이 궁합이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자가 가진 에너지적인 특징 때문이다. 감자의 탄수화물은 섭취 후 우리 몸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으로 변한다. 글리코겐은 휴대전화의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우리 몸에서 간과 근육세포에 단기 에너지의 저장 용도로 쓰이는 성분이다. 따라서 마라톤처럼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을 하기 전 감자를 먹으면 체내에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글리코겐으로 변하기 때문에 운동 후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 감자는 살찌는 음식? 오해다!

감자를 흔히 '살찌는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감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완전식품이다. 미국 예일대학 그리핀예방연구센터는 식품이 가진 다양한 건강가치를 100점 기준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5만 개 식품 중 최고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현미는 82점이었으며, 감자는 93점을 획득했다. 실제로 감자는 필수아미노산과 비타민 B 군 복합체,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등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비타민 C는 사과보다 3배 이상 많아 감자 2개만 먹으면 성인 1일 비타민 C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다. **SPORTS1**





## 고소함 가득,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한 ‘감자샐러드’



### 재료

감자 3개(약 500g), 당근 1/2개,  
오이 1개, 맛살 3줄, 소금 1큰술,  
마요네즈 7~8큰술,  
머스타드소스 3큰술,  
버터 1큰술



### 만들기

- ① 감자를 깨끗이 씻은 뒤 4등분으로 썰어 삶거나 찌준다.
- ② 감자가 익는 동안 준비한 채소를 다져주고, 맛살은 잘게 썰어준다.
- ③ 다진 채소를 볼에 담고 굵은소금 1큰술을 넣은 뒤 5분 정도 절여준다.
- ④ 채소가 절여지면 헹궈 등을 이용해 물기를 짭니다.
- ⑤ 감자가 다 삶아지면 껍질을 벗긴 뒤 뜨거운 상태에서 버터를 넣고 으깬다.
- ⑥ ⑤번에 ④를 넣고 잘 버무린다.
- ⑦ ⑥번을 한소끔 식힌 뒤 마요네즈, 머스타드소스를 넣고 잘 버무리면 감자샐러드 완성!

\* 감자샐러드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모닝빵이나 식빵에 올려 샌드위치로 먹으면 든든한 한 끼로 충분하다.

2022학년도 3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 도전! 나도 Sporter

스포츠와 일반상식 영역

<SPORTS1> 3월호는 잘 읽었나요?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KSOC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독자분의 이해를 돕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답은 <SPORTS1> 3월호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해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바로 이어 출전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MVP로 선정된 선수는?

① 정재원

② 김민석

③ 황대헌

④ 차민규

2. 'sports(스포츠)'와 'economics(경제)'의 합성어로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는?

① CONTENTNOMICS

② V-NOMICS

③ SPONOMICS

④ METANOMICS

3. 최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지칭하는 영어 약어 표기는?

① IOC

② OTT

③ TMI

④ 대한체육회TV

4.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마라톤과 찰떡궁합이라 불릴 만큼 긴 시간 동안 운동할 때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식재료는?

① 감자

② 고구마

③ 단호박

④ 야콘

## 문제 해결

TIP

## 1번 힌트

[평창 막내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빙상'의 미래로 불린다]

올림픽 이후 바로 출전한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해 매스 스타트, 5,000m, 10,000m, 팀 추월에서 우승하며 4관왕에 올랐다. 한국체육기자연맹 기자단 투표에서 53표 중 32표를 획득해 MVP 영예를 안았다.



## 4번 힌트

[김동인의 소설 '동백꽃']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느 집엔 이거 없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QR코드 스캔 후 퀴즈 정답을 제출해주세요.**

퀴즈 정답을 맞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4월 중으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3월호 정답 제출 마감일: 2022년 4월 12일)

## 2월호 정답자

김\*경 (9135), 정\*수 (0509), 차\*철 (6914), 박\*미 (3228), 조\*영 (6821)  
강\*영 (3469), 이\* (5261), 성\*재 (6982), 양\*성 (7972), 전\*하 (9587)



# SPORTS1 NEWS

## 대한체육회

### 진로지원센터 홍보 영상 제작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는 '도약을 위한 도전 Our Star, Re Start'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했다. 진로 고민에 대한 전현직 선수 모두 진로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선수진로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제작됐다.

홍보영상은 현역선수시절부터 제2의 직업을 갖기까지 선수 전반의 생애주기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진로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실제 선수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모습과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동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태권도 이대훈, 양궁 기보배 선수가 출연하며, 마스터본 1편, 슛폼 2편(선수편, 센터편)의 총 3편의 영상으로 제작했다. 해당 영상들은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홍보 영상으로 더 많은 선수 및 관계자들이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대한체육회체육상 체육대상에 '2020도쿄올림픽 양궁 여자대표팀' 선정



2월 28일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에서 2021년 대한민국 체육계에 현저한 공을 세워 체육 발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한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제68회 대한체육회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에서는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 스포츠가치 등 8개 부문에서 108명, 9개 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체육상 경기 부문에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국민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던 2020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단이 대거 수상했다. 영예의 체육대상은 2020 도쿄올림픽대회 여자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9연패 위업을 달성한 '2020도쿄올림픽 양궁 여자대표팀'이 수상했다. 수상 팀에게는 금메달(순금 10돈)이 각인된 표창패와 개인별 삼성 갤럭시탭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경기 부문 펜싱 김정환 선수, 2020 도쿄올림픽 배구 여자대표팀 등 9명, 3개 단체가,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각 부문별 수상자(우수상: 19명, 2개 단체 / 장려상: 80명, 3개 단체)가 수상했으며, 금메달(14K)이 각인된 표창패와 단체팀 부상(삼성 갤럭시워치 등)이 수여됐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가치 전달에 기여한 점 등을 반영해 올해 단체팀의 부상을 격상하여 풍성하게 준비했다. 또한, 체육 교육을 위해 헌신한故 조영식 경희학원 학원장에게 특별공로상이 수여됐다.

아울러 시상식에 앞서 유명 캘리그래피 작가 강병인 서예가와 300FIT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포토그래퍼 오종석 작가가 협업해 2022 베이징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단 65명의 이름을 한반도 모양으로 써 내려가는 퍼포먼스를 작품으로 만든 팀코리아 NFT 2022 첫 번째 디지털 아트 작품 기증식이 진행됐다.

## 2022 MARCH

## 대한체육회

##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기공식



3월 18일 전남 장흥군 부산면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부지에서 체육인 교육의 요람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대한체육회와 장흥군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3월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기공식에는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여러 사·군·구 체육회장 등 약 150명이 현장 참석했으며, 교육강사·은퇴선수·행정가 등 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회사 및 축사,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추진 경과보고, 홍보영상 상영, 건립 선포 세리머니, 시삽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체육인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 특수성에 기반하여 설립되는 종합 교육·연수시설이다. 총 사업비 313억 원 투입, 연면적 11,159㎡, 약 200명 수용 규모의 지상 3층 교육동과 지상 4층 숙박동, 지상 2층 체육관이 들어온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 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강사 양성, 교육 협력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재개발원이 완공되면 연간 5만여 명의 교육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축산물 소비 등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시도체육회

## 서울특별시체육회

## 케이 스포츠몰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체육회가 2월 23일 케이 스포츠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초상권 제공으로 얻는 마케팅 수익으로 선수단 발전기금 조성 및 복지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케이 스포츠몰은 선수단 초상권을 활용한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을 발행하는 등 다양하고 차별적인 마케팅을 통해 제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 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



부산시체육회는 3월 18일 부산시체육회관에서 ‘부산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체육인이 갖춰야 할 기본·소양 함양, 회원단체 간 정보교류·친선 도모, 기초 직무지식 및 필수교육 통한 행정 능력 함양 등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한다. 올해 연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개별 업무 교육’과 ‘집체 인권교육’, 2차로 나눠 시행됐다.

1차 교육은 2월 10~18일까지 10개 단체가 각각 10회에 걸쳐 회계교육, 단체 운영 실무교육, 전자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2차 집체교육은 ‘성폭력,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주제로 3월 18일 진행됐다.

# SPORTS1 NEWS

## 시도체육회

### 대구광역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서 수상



대구시체육회가 제68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스포츠 가치 인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체육회는 2월 2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스포츠 가치 인권 부문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신재득 사무처장이 대표로 상패를 받았다.

스포츠 가치 인권 부문은 스포츠인권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스포츠 폭력 추방 등 인권 향상에 모범이 된 단체에 주어지는 상이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부터 이 상을 제정했으며, 최우수상 수상은 대구시체육회가 처음이다. 대구시체육회는 수직적 관계로 피해자의 고발이 어려운 선수 인권의 구조적 한계를 인지하고, 사후 조치보다 선제적 예방·대응에 중점을 둔 적극적 시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대전광역시체육회 국립대전현충원 스포츠 영웅 묘역 참배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직원들과 '꿈드림프로젝트' 학생선수 40여 명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스포츠 영웅들의 묘역을 정화하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염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국립대전현충원에는 고 손기정(마라톤), 김성집(역도), 민관식(스포츠행정), 김 일(프로레슬링), 조오련(수영)까지 스포츠 영웅 5인이 안장돼 있다.

묘역 참배 및 정화 활동 후엔 2027년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한 대전 체육인들의 기원 행사가 이어졌다. 충북, 대전, 세종, 충남은 지난해 9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치열한 2파전 속에 FISU가 복수의 후보도시를 선정한 후 현지 실사, 서류심사, 최종 평가방문 등을 거쳐 내년 1월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이승찬 회장은 스포츠 영웅 참배 행사에 대해 “‘꿈드림프로젝트’ 선수들에게 스포츠 영웅들의 삶을 되새겨 글로벌 체육인재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앞으로도 출연금을 통해 꿈나무를 지원하고, 대전 체육 선진화는 물론 성공적 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2022 MARCH

## 시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사랑의 헌혈운동' 진행

경기도체육회는 3월 8일 도체육회관 앞으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의 차량을 지원 받아 헌혈운동을 벌였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이번 헌혈운동은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 확산으로 헌혈과 혈액 보유량이 급감함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헌혈운동에는 도체육회 사무처 임직원뿐 아니라 도체육회관 입주기관 관계자, 시민 등도 참여했다.

전라남도체육회  
2022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전남체육회가 '2022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2월 21일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을 비롯해 시군체육회장과 종목단체 회장 등 재적대의원 80명 중 6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총회는 시작에 앞서 전남체육인재육성 장학기금 기탁식과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보해장학생 8명, 전남체육인재 장학생 49명 중 보해장학생 백경한(전남체고 3-카누)을 비롯해 전남체육인재장학생 권민준(전남체중 2-복싱), 조민재(전남체고 2-역도), 신희선(순천여고 2-소프테니스)이 대표로 수상했다.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정기자체감사 개선사항 조치결과,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장학생 선발 결과 등 총 6건, 2022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 등 총 4건의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경상남도체육회  
스포츠인권향상위원회 출범

경남체육회는 2월 24일 경남체육회 스포츠인권향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경남체육회 스포츠인권향상위원회 위원장은 왕수상 전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위촉됐으며, 위원은 고충상담원, 심리상담사, 대학교수, 지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따른 보호 및 예방, 고충 상담 및 조사 등 스포츠인권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 SPORTS1 NEWS

## 회원종목단체

### 대한럭비협회

#### OK금융과 '럭비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도입



대한럭비협회와 OK금융그룹이 함께 '럭비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나선다. OK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출연한 OK배정장학재단은 대한럭비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럭비 학교 스포츠클럽' 도입 학교를 기존 1개(휘문고)에서 4개 학교(휘문고·중앙고·배재고·보인고)로 확대한다. 럭비 학교 스포츠클럽은 정규 교육과정 전후에 1시간가량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코치진들의 지도하에 100% 영어 수업으로 진행된다. OK배정장학재단은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각종 기자재·훈련용품 구입비를 후원할 예정이다.

### 대한바둑협회

#### 제8대 협회장에 서효석 원장 당선

대한바둑협회 회장에 서효석 편강한의원 대표원장(76)이 당선됐다. 서효석 신임 회장은 대한바둑협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제8대 회장으로 확정됐다. 대한바둑협회 회장 선거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으며, 서효석 편강한의원 대표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신임 서효석 대한바둑협회장은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편강한의원 대표원장 외에도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대한바둑협회 고문, 한국기원 이사, 사단법인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대한민국배구협회

#### 2022 동호인 등록 이벤트 실시



대한민국배구협회(KVA)가 2022 동호인 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 KVA는 2021년 생활체육대회운영시스템 고도화와 모바일 시스템 'KVA 대회정보'를 구축 후 2020년에 비해 동호인 등록률이 231%나 증가했으며, 2022년에도 동호인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벤트는 정규등록 기간인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 상의 경기인등록을 완료한 팀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8팀에게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연경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경기용품과 후원업체의 각종 테이핑, 보호대 및 공인구 등이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시상 부문에는 1~3위, 각 부문상 5팀(큰형님상, 큰언니상, 병아리상, 대가족상, 최다 대회참가상)과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강습이용권 5팀, 아깝게 순위에 들지 못한 팀을 위한 아까비상 5팀, 그리고 참가상 40팀이다.

## 2022 MARCH

## 회원종목단체

## 아이스하키협회

## 협회장에 호진 YJ하우징 대표이사 당선



이호진(56) YJ하우징 대표이사가 제24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3월 17일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공원 벨로드롬경기장 동계종목회의실에서 열린 제24대 회장 재선거에서 100명의 선거인 중 9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45표(득표율 49.5%)를 얻어 당선됐다. 보성고, 고려대를 졸업한 이 당선인은 고려대 대학원에서 스포츠산업경영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한프로골프협회장도 맡고 있다.

## 대한요트협회

## 제20대 회장 박범규 위드보에셋 회장 당선



대한요트협회 제20대 회장에 박범규 위드보에셋 회장이 당선됐다. 박범규(54) 후보자는 3월 10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한요트협회 회장 선거에서 전체 득표수 91표 중 58

표(63.7%)를 얻어 당선됐다. 박범규 당선인은 앞으로 국제대회 및 전지훈련 확대지원과 지도자, 국가대표 선수의 객관적, 전문적 선발 시스템을 개발 확대하고, 전문인력 육성 지원과 생활체육 이벤트 확대 등 공약 사항과 요트인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대한카누연맹

## 신임 회장에 조현식 사보이 호텔 대표 당선



조현식 사보이 호텔 대표(54·사진)가 대한카누연맹 제13대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카누연맹은 3월 15일 등록 마감한 회장 보궐선거에 조현식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다. 조현식 신임 회장은 3월 24일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회장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진행하지 않는다. 조현식 신임 회장은 2018년 카누연맹 부회장으로 체육계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부터 대한컬링연맹 상임고문과 대한체육회 정보통계위원장도 맡고 있다.



# SPORTS1 NEWS

## 회원종목단체

### 대한펜싱협회

#### 한우리 동의대 펜싱부 감독에게 공로패 수상



대한펜싱협회는 3월 16일 서울 오lympic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대한펜싱협회 유공자 표창 시상식에서 동의대 펜싱부 한우리 감독에게 공로패를 수상했다. 한우리 감독은 동의대 펜싱부를 11년간 지도하면서 다수의 올림픽 및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현재 남녀 사브르 국가대표 16명 중 7명의 동의대 출신 배출 등 남다른 지도력으로 한국 펜싱 발전과 우수선수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 수상자로 선정됐다.

### 대한하키협회

#### 지도자 및 심판 강습회 비대면 개최



대한하키협회는 3월 11일부터 이틀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지도자 및 심판 강습회를 개최했다. 강습회에는 전국 하키 지도자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스포츠 윤리센터 김언혜 인권 전문 강사, 서울시교육청 오정훈 과장 등

이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해 강의했다. 또 최민경 충청대 겸임교수가 체력 및 컨디셔닝을 주제로 강의하고 김상열 전 국가대표 감독이 경기 기술에 대한 강의를 맡았다. 올해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김정희 심판위원장, 이미옥 온양한울중 교사가 국제무대의 흐름을 소개했다.

### 대한산악연맹

#### 클라임코리아와 공식 후원계약

대한산악연맹은 지난 2월 25일, 클라임코리아(주)와 스포츠클라이밍 주요 국내 및 국제대회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맹은 클라임코리아로부터 14억~16억 원 상당의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경기벽 등 일체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간 공식 후원받게 되며,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스포츠클라이밍 종목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됐다. 손중호 회장은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을 위해 후원을 결정해주셔서 감사하다. 클라임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보다 경쟁력 있는 국내·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스포츠클라이밍 종목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오늘부터 갓생살기 시작합니다

갓생은 GOD(신)+人生(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대단하고 좋은 것,  
훌륭한 것을 말할 때 접두어처럼 사용되는 갓을 인생에 붙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으로 갓생살기 프로젝트를 실천해보세요!



# 7330

## 건강, 이렇게 쉽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 내 몸이 건강해지는 시간 7330!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